

천일국 최대 승리기념일 선포 • 202

천승일 • 203

출감기념일 • 204

총해원추석절 • 205

4 명절과 기념일 진행 요령 - 207

준비와 지침 • 207

시간과 장소, 복장 • 208

명절과 기념일 상차리기 • 208

명절 기념행사 식순(천정궁) • 210

성화절 기념일 • 211

섬리 공헌자에 대한 협회 주관 특별추모식 • 212

교구와 교회에서 주관하는 8대 명절 및 주요 행사 • 213

일반 기념행사 • 215

일러두기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에서는 하나님을 인류의 부모라고 보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은 참부모라고 부르며 한 분을 지칭할 때는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장

축복가정의 생활예식





천일국 4대 성물

천일국 4대 성물의 원리적 의의

성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늘부모님과 사탄 두 주인을 섬기는 중간위치에 있는 타락한 비원리적 인간이 하늘부모님만을 대하는 원리적 선편에 서기 위한 선악분립 의식이다. 그리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종적 부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세우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참사랑을 중심한 원리적 성별생활은 가장 근본적 선악의 분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늘부모님의 창조목적(3대 축복) 완성을 위한 것이다. 천일국 신앙생활, 즉 기도 예배 헌금 훈독회 등과 같은 모든 신앙생활이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향한 성별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참부모님께서서는 1960년 3월 16일 참부모님 성혼식 때 처음으로 성염을 만드시어 소생단계의 성물을 하사해 주셨고,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

관식 승리를 통해 장성단계의 성물을 하사하셨다. 그리고 2016년 참부모님 성혼 56주년을 맞이하여 마지막 완성단계의 천일국 4대 성물을 하사하셨다.

천일국 성물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직접주관시대를 맞이하여 지상 생활의 모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본연의 에덴동산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은사이자 축복이다. 그래서 천일국 성물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림자가 없는 정오정착된 신앙기준에서 새로이 세워 주신 천일국의 참다운 백성으로서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축복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성염

1) 유래 및 의의

천일국 성염은 온전히 하늘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 철저히 선악분립의 생활을 하고, 지상생활을 마감한 뒤 영계에 갈 때 지상생활에서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성별하여 본연의 아담 해와의 입장에서 영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한다. 천일국 백성이 머무르는 공간이나 생활 근거지의 모든 물건을 성별하여 하늘부모님과 축복가정이 안식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준다.

참부모님께서 1960년 음력 3월 16일 참부모님의 성혼식 때 처음으로 성염을 만드시어 성혼식 전에 교회 사방을 성별하셨다. 성혼식 후 전 세계 식구들에게 성염을 분배해 주도록 말씀하심으로써 성염을 통한 성별생활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참부모님께서 성혼식의 승리적 기대 위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주관하에 놓이게 된 인간과 모든 만물과 환경을 하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일찍이 하늘부모님께서 죄악을 멸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소금으로

사탄 분립을 위한 성염을 만드셨다. 소금은 살균기능이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여 사물의 깨끗함과 온전함을 유지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립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온전한 삶을 위한 성별적 기능으로 성염이 된 것이다.

성염을 통한 성별생활은 사탄의 침범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사탄 분립을 위하여 신앙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식이다. 성염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것으로 분별해 내는 조건물이다. 참부모님께서 이러한 성염의 사용은 완전히 복귀된 세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전통적으로 사용된 성염과 달리 2003년 8월 16일 통일이식구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생식이 강조되어 천일국 성염이 전수되었고, 2006년 6월 13일 대륙회장들에게 전수하신 천정왕궁 성염이 기존 성염을 대신하여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2016년 참부모님 성혼 56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 대륙회장에게 하사하신 4대 성물 가운데 하나인 성염을 번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사용 방법

성염으로 성별을 할 때 2003년 천일국 성염 사용 때부터 “천지인참부모님과 천일국 주인 ○○○의 이름으로 성별하나이다.”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성염을 십자(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로 뿌린다.

식료품, 옷, 가구, 차량 등 구입한 물건은 성염으로 성별을 해야 한다.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았을 때도 성별해서 사용한다. 식구들에게 받은 선물일지라도 주는 사람이 성별을 이미 했다고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성별을 한다.

3일행사나 봉헌식을 할 경우 영적 분위기가 나쁜 방이나 어떤 장소를 깨끗이 하고 정화하려 할 때 성염으로 성별한다. 방 한가운데서 북쪽을 향해 선다.

기본적인 기도를 한 후 북, 남, 동, 서 십자형으로 성염을 뿌린다. 그다음에 방 전체에 뿌린다는 조건으로 시곗바늘 방향으로 성별한다.

건물과 토지의 구입 및 임대인 경우 중심이 되는 장소에서 앞에 설명한 장소의 성별과 같이 하며, 다른 방은 약식으로 방문을 열어 놓고 방 안에 성염을 세 번 뿌린다. 토지를 성별할 때는 가능하면 길을 따라 성염을 뿌리면서 주위를 돈다. 만일 그 토지 규모가 너무 커서 전 지역을 성별하기 힘든 경우에는 토지 중심부로 가서 방이나 장소를 성별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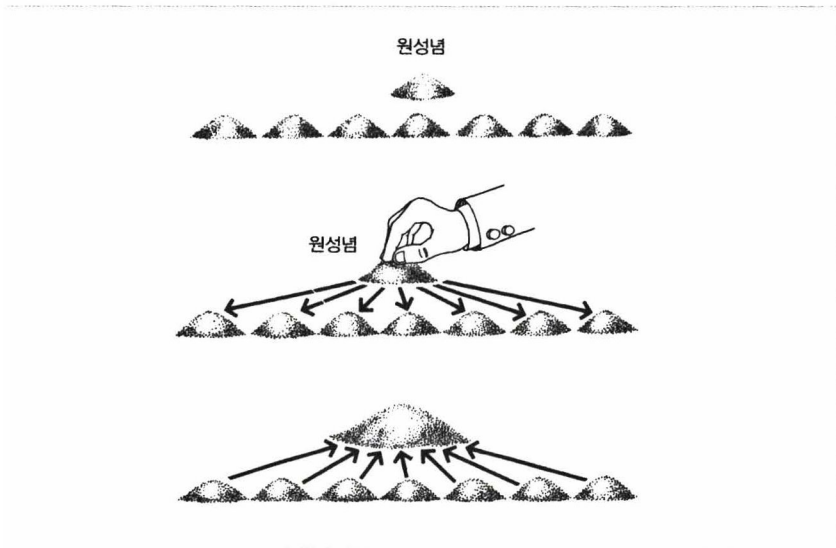
성별한 물건은 사탄세계에 내주지 말아야 한다. 성별된 물건을 매각 또는 외부에 헌납 및 반납해야 할 경우 기도를 통하여 사용했던 한정적인 기간에만 그 효력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리고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팔아야 하는 형편을 보고하고 성별취소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음식점에서나 친구 집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성염으로 성별하는 것이 좋으나, 분위기가 어려울 때는 성염을 사용하는 대신에 음식을 향해 입으로 가볍게 세 번 불어서 성별한다. 사물에 대해 성별할 경우에도 성염이 없을 때 같은 방법으로 세 번 불어서 성별한다.

장례식에 참석한 경우에는 교회 혹은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 성별을 해야 한다. 축복가정의 성화식에 참석한 경우에는 성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축복가정의 장례식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사탄세계의 사망과 연결된 모든 것을 영적으로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성별해야 한다. 비식구인 경우에는 성별 방법대로 성염으로 자신의 몸을 성별한다. 그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 놓고 같은 방향으로 세 번 불 위를 넘어야 한다.

3) 증식 방법

- 교회 지도자나 선배가정 또는 믿음의 부모가 교회에서 쓰는 성염을 증식해서 나눠 준다. 축복가정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 쓴다.
- 성염(씨가 되는 원성염) 일정량을 마련한다.
- 성염을 증식하려는 장소를 깨끗이 한다.
- 일정량의 새 소금을 구입하여 성염으로 성별한다.
- 원성염과 같은 양의 새로운 소금 더미를 똑같이 일곱 개 만든다. 만일 원성염이 극히 소량일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량의 일곱 더미를 만들고 보고기도를 한 후 혼합함으로써 증식한다. 더 많은 양을 만들려면 성염 증식 절차에 따라 한 번 더 증식하면 된다.
- “천지인삼부모님과 천일국 주인 ○○○의 이름으로 이 소금이 거룩해져서 성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늘부모님과 삼부모님의 심정과 거룩한 사랑의 권세로 이 소금이 성염이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라고 보고기



도를 올린다.

- 원성염을 나누어 준비된 새 소금 일곱 더미 위에 갖다 놓는다.
- 원성염과 각각의 새 소금과 섞는다.
- 모두 함께 섞는다.
- 감사의 보고기도를 드린다.

성초

1) 유래와 의의

천일국 성초는 천일국 기원절을 기해 개막된 실체 천일국을 국가와 세계와 천주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축복가정들은 성초를 켜 놓고 세상 앞에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참사랑의 삶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자신의 가정과 종족을 찾아세워 국가복귀를 향해 정성을 들여야 한다. 즉 성초를 밝히게 되면 하늘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

심정초(1966년 1월 5일 전수)는 인간의 타락으로 초래된 하늘부모님의 슬픈 심정을 위로하며, 하늘부모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어 창조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해산초는 7개로 구성된 칠성초로서 참부모님 가정에서 예진님 탄생(1960년 음력 12월 11일)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해산초는 하늘부모님의 참자녀가 성별된 환경에서 탄생될 수 있는 정성의 조건으로 사용한다.

애친초(1984년 5월 20일 전수)는 참아버님초와 참어머님초 한 쌍으로 되어 있으며, ‘참부모님의 참사랑’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축복가정만 사용한다.

통일초는 1995년 9월 5일부터 1996년 1월 2일까지 참어머님께서 참자녀님들과 함께 120일간 정성을 들인 터 위에 전수해 주신 성초로서 위에서 언급된 해산초, 심정초, 애천초 등의 통일적 의미를 지닌다.

2002년 10월 18일 훈독회에서 참부모님은 천상지상평화통일해방성화식 거행을 지시하셨다. 천지부모통일안착생활권시대를 열면서 천일국 백성으로서 주인의식 갖기를 지시하시며 과거의 삶, 습관 및 잘못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준에서 성화의식을 거행하였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의 조건으로서 개인별로 넥타이, 손수건 등과 같은 물건을 준비하고 그 물건을 태우는 의식이 있었다. 이는 성초와 함께 불을 통한 성별로서 특별한 의식의 하나이다.

천정왕궁초는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관식 때 대륙회장들에게 전수해 주셨다. 후천개벽시대 평화의 왕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창건을 위한 정성을 전 세계적으로 들이기 위한 성초이다.

참부모님께서는 2006년 8월 31일 천주평화조국향토 천지환원승리석방대회에서 모든 참석자들이 명함을 태우는 성화의식을 거행하셨다. 이는 천일국 신앙인들이 죄악세계의 모든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성별된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출발해야 함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천일국 창건 성초는 2012년 천력 1월 2일 천지인참부모 93세 성탄 및 금혼과 고회 그리고 희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천복궁에서 거행된 천복식에서 전 축복가정에게 전수해 주시면서 전 인류는 하늘가정을 모시고 하나의 핏줄, 하나의 전통, 하나의 닦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 촛불을 교회, 나라, 세계까지 꺼지지 않도록 전부 붙여야 한다고 하셨다.

현재는 2016년 참부모님 성혼 56주년 기념으로 하사하신 천일국 4대 성물

의 성초를 번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사용 방법

성초를 밝히면 하늘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 성초는 하늘부모님의 뜻 성취를 위하여 공동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모아 정성을 들일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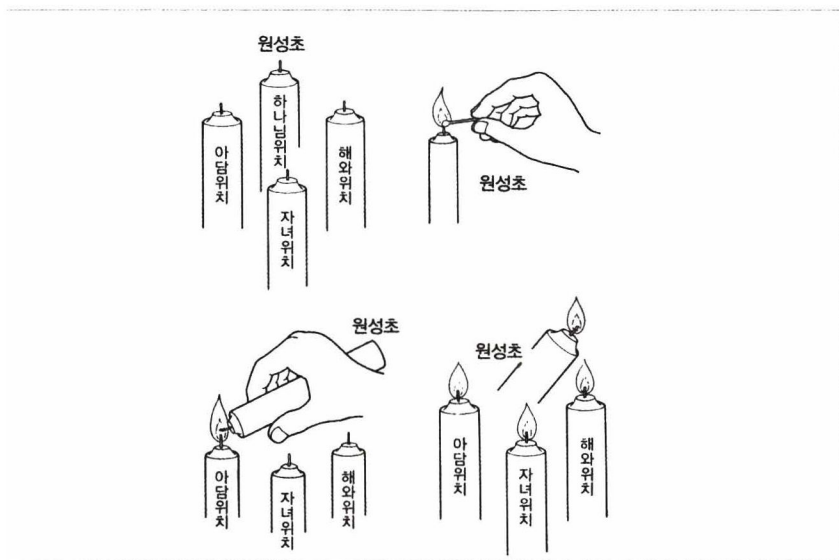
- 축복을 받기 위해 특별정성을 들일 때
- 3일행사를 할 때
- 자녀를 해산할 때
- 축복가정의 자녀 봉헌식을 할 때
- 자녀 출생 후 40일, 103일, 생일식을 할 때
- 가정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 교회에서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기도회를 할 때
- 천일국의 실제적인 창건을 위하여 활동할 때
-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정성을 들일 때 등

성초는 성성냥이나 점화도구를 사용하여 불을 붙인다.

성초는 끝 때 입으로 불지 않고 두 손가락이나 소화도구를 이용한다.

3) 증식 방법

- 3개의 새로운 초를 구입하고 성염으로 성별한다. 새로운 초는 흰색이나 밝은 미색으로 적어도 길이가 12~15cm 정도는 되는 것이 적당하다.
- 원성초를 쫓아 놓을 촛대 또는 접시를 준비한다.
- 촛대에 쫓은 원성초는 하늘부모님의 위치에, 새로 구입한 3개의 초는 아



담·해와·자녀의 세 위치에 사위기대 모형으로 세운다.

- “천지인삼부모님과 천일국 주인 ○○○의 이름으로 성초를 증식하고자 하나이다.”라는 내용으로 증식을 시작하는 기도를 올린다.
- 원성초에 성성냥으로 불을 붙인다.
- 원성초를 오른손으로 쥐고 아담, 해와, 자녀 초의 순서로 불을 붙인 다음 원성초를 원위치(하늘부모님의 위치)에 다시 놓는다.
- 초에 불이 타고 있는 동안 마무리하는 기도를 올린다.
- 성성냥의 증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3개의 새로운 성냥을 구입하고 성염으로 성별한다.
 - 원 성성냥은 하늘부모님의 위치에, 새로 구입한 3개의 성냥은 아담, 해와, 자녀의 세 위치에 사위기대 모형으로 놓는다.
 - “천지인삼부모님과 천일국 주인 ○○○의 이름으로 성성냥을 증식하고자 하

나이다."라는 내용으로 증식을 시작하는 기도를 올린다.

— 원 성성냥을 가져다가 아담, 해와, 자녀 성냥 위에 순서대로 올려놓았다가 원 위치(하늘부모님의 위치)로 다시 가져간다.

— 간단히 마무리하는 기도를 올린다.

성주

1) 의의

천일국 성주는 비원리적이고 잘못된 신앙과 삶을 완전히 회개하는 조건 위에 천일국 차원에서 은사를 받아 축복가정으로서 거듭나게 한다. 모든 가정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일체의 잘못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회개하는 조건 위에 천일국시대를 맞이하여 천주적 차원에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새로운 축복가정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려는 포괄적인 특사로 내리는 성주이다.

2016년 참부모님 성혼 56주년 기념으로 천일국 4대 성물을 하사하심으로 써 가정단위에서도 성주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에서 성주를 사용할 때는 별도 지침을 받아야 한다.

2) 증식 방법

원액성주, 성염, 포도주, 혼합용 용기를 준비해 성전이나 기도실에서 목회자가 포도주를 성별하고 성주 번식에 대한 기도를 한 뒤, 1(원액성주)대 4(새 포도주)로 혼합하고 다시 증식 완료의 기도를 한다.

성토

1) 의의

하늘부모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늘부모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쓰시고 신인애일체를 이루셨을 것이다. 천일국 성토는 태초에 사탄이 침범하기 이전의 인간으로 재창조하는 상징물이며, 하늘부모님의 전(殿)으로서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 성토는 나와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천일국으로 확장하기 위한 상징체이다.

천일국 4대 성물 가운데 성토는 참아버님을 모신 본향원의 흙을 분배받은 것이다. 축복가정의 부부가 성화할 때 원전식에서 성토를 뿌림으로써 원전지성별과 함께 본향원과 연결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2)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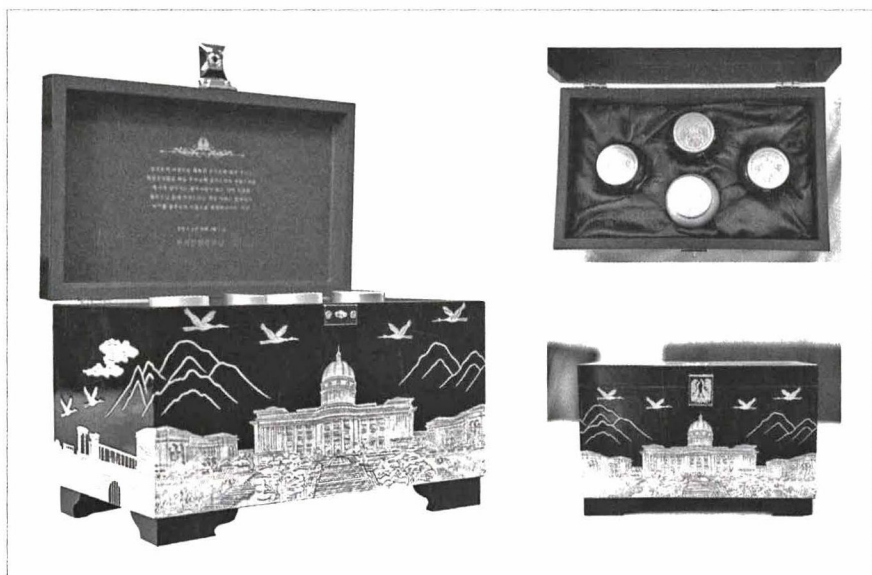
각 대륙본부, 국가 책임자는 원성토를 보관하고 증식하여 국가별 성지에 분토한다. 축복가정은 보관 후 성화식 때 원전식에서 성토를 혼합하여 헌토한다.

3) 증식 방법

성토는 개인이 증식할 수 없으며, 목회자가 교회에서 쓰는 성토를 증식해서 나눠 준다. 새 흙을 성지에서 채취해 성염으로 성별한 뒤 성염 증식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천일국 성물함

천일국 성물함은 2016년 4월 22일 참부모님께서 하사하신 천일국 4대 성물을 각 가정에서 한 곳에 모아 정성껏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경배식

경배의 원리적 의의

경배는 인간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실체적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종적 부자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 의례이다. 종적인 모심의 심정기준을 횡적으로 확대하여 하나의 통일된 심정권을 형성함으로써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 그리고 전 영계까지 천주적 심정권을 구축하는 근원적 의례이다. 시의시대 전통을 확립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의례이며, 천일국 창건을 위한 중추적 신앙 의례이다.

특히 축복가정으로서 가장 중히 여기는 전통 중 하나가 바로 경배식이다. 참부모님께서도 감사와 모심의 표현으로 하늘부모님께 항상 경배를 올리셨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존영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를 올린다.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존영을 향해 경배를 드리면 하늘부모님께도 경배를 올리는 것이 된다. 경배 정성은 참부모

님을 모시고 보호해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

매주 일요일과 안시일, 매월 초하루에는 오전 5시에 드리며, 8대 명절에는 오전 7시에 드린다. 쌍합십승일 선포로 7일 간격으로 지켜오던 성일이 8일 간격으로 지키는 안시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매월 초하루에는 한 달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전 식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공동으로 경배를 드린다. 훈독회 시간에 경배의식을 갖는 것은 가정환경을 좋게 하고 자녀교육에 효과가 있다.

경배식 준비

경배식을 드릴 장소는 정성을 들인 깨끗하고 성별된 곳이어야 한다. 경배식을 드리기 전 공간을 깨끗이 청소한다. 북쪽은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단(壇)은 가능하면 북쪽에 세운다. 작은 단을 깨끗하고 밝은 색의 천으로 덮고 그 위에 참부모님 존영을 올려놓는다. 단 위에 추가로 천일국 성초와 꽃,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또는 과일을 올려놓는다.

경배식을 올리기 전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한다. 옷차림은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며 예복을 입거나 정장을 한다. 예복이 없는 식구들은 갖고 있는 옷 중 가장 깨끗한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남자는 검은색 또는 군청색 정장에 흰색 타이를 매고, 여자는 흰색 정장 또는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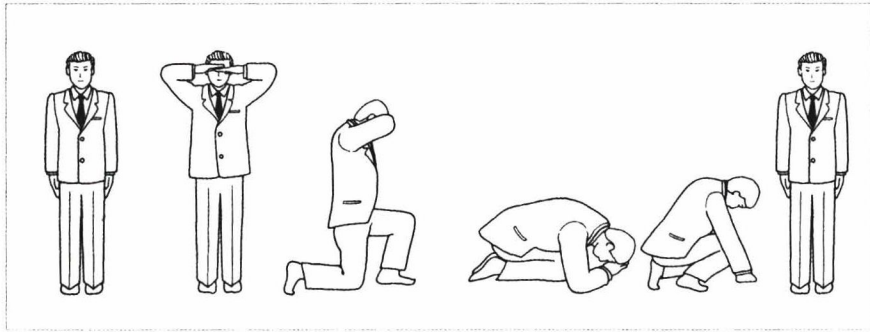
축복을 받지 않은 자녀도 예복을 입을 수 있다. 축복을 받지 않은 자녀의 경우 남자는 검은색이나 군청색 정장, 여자는 흰색 정장 또는 드레스를 입을 것을 권장한다.

경배의 방식

경배의 전통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경배식에서 깊은 존경심을 담는 것이 경배 행위보다 월등히 더 중요하다. 경배는 명절과 성일, 안시일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정성이다. 매일 기상 후, 훈독회 시간 중, 출근 및 퇴근 후에도 경배를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인사드린다. 자녀의 봉헌식과 3일행사 때도 경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릴 때는 서두르지 말고 정성을 담아 천천히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경배를 드릴 경우 지도자의 속도를 따른다. 모두가 같은 속도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1) 경배의 방식

- 양 발은 적당히 벌리고 양 팔은 옆구리에 붙여 똑바로 선다.
- 눈의 높이는 45도 아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손은 펴고 왼손 위에다 오른손을 얹은 상태에서 팔을 엄숙하게 수평으로 올려 포갠 손이 눈썹 높이까지 오게 한다. 두 손은 성상과 형상, 양성
과 음성을 의미하며 두 손을 포갠 것은 조화와 통일, 그리고 일체를 이룬다는 뜻이 있다.
- 무릎은 왼쪽 무릎을 먼저 살짝 구부리되, 오른쪽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게 한 뒤 허리를 구부린다. 이때 발은 왼쪽 발바닥 위에 오른쪽 발등을 얹고 엎드려 경배할 때 엉덩이를 쳐들어서는 안 된다. 양손은 바닥에 대고 이마를 그 손 위에 가볍게 대거나 살짝 스치는 정도로 숙인다.
- 일어날 때는 손을 바닥에 댄 채로 오른쪽 다리를 먼저 든 다음 나중에 왼쪽 다리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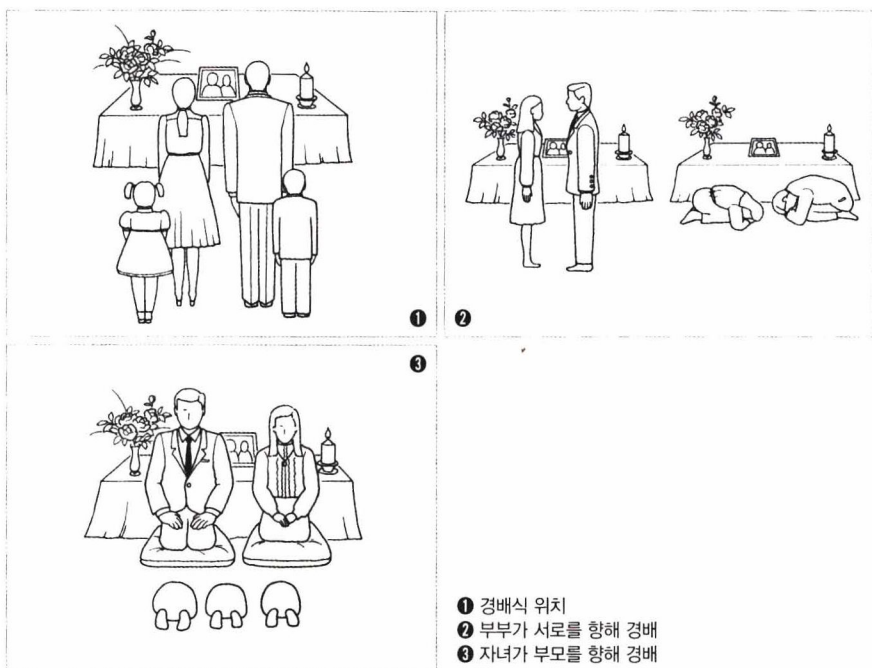
- 일어나 설 때는 양 손을 배 상단 높이까지 자연스럽게 올렸다가 본래 위치인 양쪽 옆구리에 붙인다.

2) 가정에서의 경배식

가정에서의 경배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가족의 대표가 앞에 서서 경배식을 이끈다. 모두가 참부모님의 존영을 향해 동시에 경배를 올린다.(그림❶ 참고)
- 가정맹세를 함께 제창하고 남편 또는 아내가 대표기도를 올린다(부부는 손을 잡고 기도를 올리도록 한다). 대표기도 후 필요 시 단체기도를 드린다.
- 이어서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 경배를 올린다.(그림❷ 참고)
다음 부모가 단(壇) 앞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경배를 올린다.(그림❸ 참고). 경배를 올리고 난 후 참부모님께서 어린 자녀님과 손주님들을 안아 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표시한다.
- 마지막으로 간증 또는 참부모님 소식, 그리고 참부모님의 말씀 훈독 등을 한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경배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6개월 이상의 아기의 경우 부모 품에 안겨 경배식에 참석할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전통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전통을 통해 자녀는 모심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초기에 만 아이가 모심의 생활을 힘들어 하더라도 일상의 습관이 되면 형제자매들도 자연스럽게 본보기가 되고 가르치게 된다.

3) 교회에서의 경배식

교회 경배식의 경우 경배 시작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명상이나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한다. 교회 초창기에는 식구들이 30분에서 한 시간씩 먼저 모이기도 했다. 많은 식구님들이 경배식에 참석할 때는 기도 후 성가를 불러 거

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가정맹세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모든 의식은 정시에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가 제일 앞에서 경배식을 인도한다. 자리가 부족할 경우 다른 식구님들과 함께 제일 첫 줄에 서서 경배식을 지도한다. 전통적으로 앞줄은 2세 부부 또는 2세 자녀들이 선다. 그 후 축복 연도에 따라 1세 부부들이 순서대로 선다. 남자 식구는 예배단의 오른쪽, 여자 식구는 예배단의 왼쪽에 선다. 경배식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묵도(명상)
- 천일국가 제창
- 경배
- 가정맹세 제창
- 보고기도
- 훈독과 말씀
- 보고기도
- 결단찬송
- 폐식 및 광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경배를 올리기 전 “천일국 ○○년 천력 ○○월 ○○일, 양력 ○○년 ○○월 ○○일, 경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삼부모님께 경배”라고 말하고 경배를 올린다. 임산부와 몸이 불편한 식구는 서서 반절을 올린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경배를 올리기 불편할 경우에도 모두가 반절을 올린다.

가정맹세는 가능한 한 한국어로 낭독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울 경우 모국어로 낭독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리 정해진 대표자가 기도를 올린다. 기도의 내용은 하늘부모님의 창조 목적과 인류역사 속 복귀섭리, 참부모님의 하늘부모님 뜻 성취, 그리고 공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야 한다. 필요의 경우 공지사항 또는 짧은 말씀을 나눌 수 있다.

경배식에 늦을 경우 회개의 심정으로 남은 경배식을 참석한다. 경배식의 상당 부분을 놓칠 경우 중간에 참석하는 대신 다른 공간에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식을 올리도록 한다.

예복

예복은 공식적인 의식 때 착용하는 의상이다. 8대 명절 및 성일, 3일행사, 자녀 봉헌식, 그리고 성화식 때 예복을 착용할 수 있다. 예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는 단정한 의복을 준비하여 갖추어 입는다.

최초의 예복은 영계를 통하는 분이 영계에서 본 그대로 디자인하여 만들었다. 36가정을 축복하기 이전에는 각종 특별기도회에서 흰옷을 입었다. 36가정 축복결혼식 때부터 예복을 입었다.

참부모님 존영에 대한 예(禮)

참부모님의 존영은 집 안 거실이나 안방에서 가장 중심이 되며 주변에 다른 사진이 없는 곳에 모셔야 한다. 참부모님의 존영을 모시고 있는 장소(교회 또는 식구들의 집 등)를 방문하였을 때, 먼저 참부모님 존영을 향해 정중하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 장소의 형편에 따라 선 채로도 경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

후 마음 모아 기도를 드린 다음 다른 용무를 본다.

단상용 존영은 방의 크기에 맞는 크기의 사진을 골라야 한다. 참아버님께서는 기도실을 포함하여 한 공간에 참부모님 또는 참가정의 존영을 두 개 이상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참부모님께서 일상 속에서 찍으신 존영은 집의 다른 공간에 두고 기도실과 단상에서는 공식 존영을 사용한다.

축복가정은 언제 어디서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참부모님의 존영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1984년 참부모님 성탄을 맞아 참아버님께서 모두가 참부모님의 존영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1984년 2월 7일 참아버님께서 ‘언덕을 넘어가자’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후 여러분은 선생님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적기사를 행할 때, 장자들이 환란을 당해 병들어 죽었지만 양의 피를 문설주에 칠한 집은 그 환란을 모두 피해 갔습니다. 영계에서는 인간들의 모든 행동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130-290, 1984.02.07)

“영인들은 선생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진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영인들은 그 사람을 도와 어려운 국면을 타개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130-291, 1984.02.07)

3 훈독회

훈독의 원리적 의의

훈독(訓讀)은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늘부모님의 구원섭리, 곧 재창조섭리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 참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말씀의 실체가 되기 위하여 뜻을 새겨가며 읽는 것을 말한다.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인간 책임분담을 완수할 수 없다. 인간은 훈독을 통하여 선포한 말씀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삶의 가치(창조목적)를 실현하는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천지인참부모님을 통하여 주신 총체적이며 최종적인 재창조섭리역사의 말씀을 훈독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한 창조본연의 이상세계, 곧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실현하게 된다.

참부모님께서 이른 아침 훈독회 시간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읽고 배

우게 하기 위해 세우신 전통이다. 한자 ‘훈(訓)’은 하늘부모님의 말씀(言)이 강물(川)처럼 흘러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강줄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가거나 대기 중에 증발하거나 구름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

참부모님께서 훈독회라는 전통을 세우심으로써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섬기는 기준을 정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을 확고히 지키고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모시며 살아야 한다.

인간은 하늘부모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복귀 또한 하늘부모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하늘부모님의 말씀이 곧 참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부모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참아버님께서 ‘생즉필사(生卽必死), 사즉필생(死卽必生)’의 정신으로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재림 메시아의 강림을 알고 있는 영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협조하는 것이다.

훈독을 위한 지침

1) 훈독교재

참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정리한 8대 교재교본(문선명선 생말씀선집, 원리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경전) 중 원리강론과 세계경전을 제외한 모든 말씀 부분을 보완하고 재정리하여 3대 경전(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을 완성하셨고, 이를 중심적 훈독교재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셨다.

2) 훈독의 이해 방법

첫째, 문학적 이해를 해야 한다. 문학적 이해란 우선 순수한 문자적 이해를 말한다. 말씀 그 자체, 곧 그 뜻을 충실히 이해해야 한다. 다음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여러 자료들과 대조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역사·사회적 이해를 해야 한다.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선포된 때와 장소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은 말씀이 선포된 시기와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원리적 이해가 필요하다. 원리적 이해란 말씀에 나타난 여러 내용을 원리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 심정적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의 심정적 이해를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말 못할 고통의 심정을 깨닫게 되어 하늘의 섭리적 한과 해원의 역사를 알게 된다.

3) 훈독의 태도

훈독시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순결한 심정이다. 오직 순결한 심정만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고, 하늘부모님 역시 그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 주신다.

훈독시간에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요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훈독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본 내용을 입으로 소리내 읽고, 소리낸 내용을 다시 자신의 귀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고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훈독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말씀의 본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하늘부모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가능하게 된다.

4) 시간, 장소, 말씀선택

훈독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고정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은 하늘부모님께 봉헌된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늘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념해야 한다. 정확히 언제 행해야 하는가, 얼마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을 훈독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위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한다. 갈급한 마음으로 훈독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할 수 있다.

훈독할 말씀은 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택한다. 하늘부모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차례대로 훈독할 필요가 있다. 말씀은 각 편마다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중심하고 섭리의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훈독한다.

가정훈독회 보고기도

축복가정이라면 매일 훈독 보고기도를 올려야 한다. 축복가정의 최우선 과제는 자녀의 신앙심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매일 훈독 보고기도와 경배식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전통과 이상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같이 정성을 들이면 가정이 하나되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겠지만, 특히 보고기도와 경배를 통해 부모가 효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위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하늘부모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 훈독 기도회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자녀의 기도를 경청함으로써 자녀의 믿음의 깊이와 확신을 이해하여 하늘부모님과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훈독회 보고기도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독실한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정성을 들이는 훈독회는 자녀에게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자녀가 갖고 있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부모가 너무 바빠서 훈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 스스로 훈독회를 주관하게 한다. 그러나 부모는 가능하면 항상 참석해 훈독회 보고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좋다.

모든 축복가정은 자녀들에게 참부모님과 참부모님 가정을 위하여 보고기도를 하고 모시는 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가정이 하늘부모님의 뜻 가운데 참다운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보고기도하고, 또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오늘 하루 하늘부모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고기도한다.

이에 관해서 참아버님께서 《뜻길》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식의 손을 붙들고 부부가 새벽에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해야 한다. 그것이 알려질 때 전통이 된다.” (324쪽)

아직 자녀가 없거나 임신 중일 경우 또는 자녀가 갓난아기일 경우에도 부부 둘이서 훈독회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훈독 보고기도를 통해 부부는 보다 깊은 조화와 일치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된다. 축복가정의 부부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가정을 모시고 사는 가정적인 기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매일 훈독회를 실시할 때에 보고기도의 주요 초점이다.

훈독회 순서

- 준비: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다.
- 묵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신다.
- 준비찬송
- 경배: 참부모님을 모시거나 규모가 큰 훈독회 행사의 경우 경배를 한다.
- 가정맹세: 참부모님을 모시거나 규모가 큰 훈독회 행사의 경우 실시한다.
- 기도
- 훈독
- 대화: 훈독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말씀 구절이나 혹은 자신이 깨달은 심정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보고기도
- 폐회

개인 훈독회

개인 훈독회는 혼자서 하는 훈독회로서 공동 훈독회에 준하여 진행한다. 훈독시간에 자기가 읽고 자기가 듣고 대화의 시간에도 자기와 대화를 하는 차이점이 있다.

개인이 훈독할 때는 빨리 읽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말씀을 하늘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천천히 읽는다. 온 마음과 몸으로 훈독한다.

손으로는(촉각) 말씀을 들고 훈독하고자 하는 부분을 편다. 눈으로는(시각) 말씀을 보고, 입으로는(미각) 그 말씀을 작게 소리내어 읽는다. 그리고 귀로는

(청각) 입으로 읽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기억과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한다.

훈독 말씀 중에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에 잠시 머문다.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그어 표시해 둔다. 말씀의 그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서 작은 소리로 암송한다. 개인 훈독회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준비
- 묵도
- 찬송과 경배
- 가정맹세
- 기도
- 훈독
- 묵상
- 보고기도
- 폐회



축복가정의 생활법도

전통 상속

축복가정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아들딸 위치에 있다. 따라서 축복가정들은 하늘의 전통을 실천하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모심의 생활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통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자녀교육은 부모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가정에서 출입 시에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정에서 식구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체휼하게 된다.

또한 신앙적인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윤리나 신앙자세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모의 솔선수범은 자녀들에게 백 마디의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감화를 준다.

참부모님이나 일반 손님에 대한 영접 준비를 하는 관례를 잘 숙지하고 실행하게 되면 축복가정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모심의 자세를 올바로 갖출 수 있다. 하늘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모심의 생활을 확립해 나가는 실천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참부모님께서는 항상 참부모님과 손님을 모시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이상세계 전통의 일부이다. 부모가 손님을 영접할 때에 정중히 예를 표하면 자녀들도 손님을 존경하고 모시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목회자와 교회 식구들을 집에 초대함으로써 모심을 실천할 수 있다.

참아버님께서는 외출 중이라도 집의 문을 열어 놓고 다니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찾아온 손님을 호텔이나 여관에서 묵게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주일이나 한 달 또는 그 이상이라도 함께 기거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손님이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기 형제의 집에 온 것과 같은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뜻길》을 보면 축복가정들의 이러한 책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큰집이니, 찾아오는 사람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다. 옛날에 선생님이 밤잠을 자지 않고 식구를 대하던 일을 축복가정이 대신 책임지고 해야 한다.”(355쪽)

가인·아벨 원리와 장자권 복귀

차자 아벨은 섭리적으로 하늘(선)편에 속한 아담 입장의 사람이며, 장자 가

인은 사탄편에 속한 천사장 입장의 사람이다. 아벨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온유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고 가인을 위하여 희생봉사해야 한다. 아벨은 하늘부모님의 사랑의 대신자로서 가인을 절대사랑하여 자연굴복시키고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한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싶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으며 아벨 앞에 절대순종해야 한다.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굴복하며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아벨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한다.

아벨은 탕감복귀의 조건을 세워 장자권을 복귀하여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담권을 회복함으로써 하늘부모님과 종적인 부자관계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가정의 법도

천일국 정착을 위해 식구들은 말과 태도,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 가정에 규율과 가법, 즉 예법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자기 가정을 중심삼고 가정으로부터 하늘 뜻을 세워 나가야 한다. 부모는 일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윤리의 제1조다.

참부모님께서는 어디 갔다 집에 오면 반드시 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다. 자녀교육은 부모가 일생 동안 정성을 들여 해야 한다. 3대가 하늘을 모신 공신이 된다면 천하에 없는 천상세계의 공신이 된다.

하늘부모님과 부모의 자리는 먼저 생각해 주는 자리이다. 위해 주는 사람이 중심이다. 보다 위해 주는 사람이 책임자가 된다. 효도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에게 귀한 것을 사 드리고 그다음 아내

와 자식에게 사 준다. 밥을 먹을 때도 부모를 모시고 먼저 부모가 잡수신 다음에 먹는다.

아버지는 자식을 대할 때 친구 중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스승 중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나은 제일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아내를 버렸으면 버렸지 부모를 버릴 수는 없다. 충신의 가정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라님(왕)을 먼저 생각한다.

자녀는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사랑받는다. 부부가 참사랑으로 일심·일체·일념·일화·일행을 이룰 때 참생명·참혈통의 참가정을 만들 수 있다. 가정생활에서 본이 못된 사람은 세계적이며 천주적인 지탄을 받는다. 가정은 첫째로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가정, 즉 인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로 하늘가정 삼위기대가 완전히 단결하여 하나되어야 한다.

개인주의는 안 된다. 가정주의를 통하여 전후좌우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부모의 것이자 아들딸의 것이다. 부모는 자녀의 것인 동시에 하늘부모님의 것이다. 먼저 하늘부모님의 것이 되고 자녀의 것이 된 후에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형제를 더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형제를 부모와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 천국 가는 길은 형제를 하늘부모님같이 사랑하는 데서 열린다. 이것이 윤리의 제2조다.

기도생활

기도는 하늘부모님과 인간 사이의 심정적 의사소통이며,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이다. 기도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무한한 지혜와 직

접 연결할 수 있다. 기도의 목적은 사탄 분립과 하늘부모님과과의 심정관계 복귀, 하늘부모님 복귀섭리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

참아버님께서 초창기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셨다. 그러나 1960년부터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셨다. 식구들도 오랫동안 참부모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왔지만, 2001년 1월 1일부로 ‘축복중심가정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왔다. 그 후로 단순히 회개와 반성의 목적에서 하늘부모님께 승리 결과를 보고드림으로써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보고기도 형태로 바뀌었다. 또한 2006년 9월 14일부로 ‘아멘’ 대신 ‘아주’로 기도를 끝맺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축복중심가정 ○○○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라고 보고기도를 끝맺는다.

축복가정 자녀의 경우 “축복중심가정 ○○○ 가정의 자녀 ○○○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라고 기도드리며, 1세 미혼자의 경우 “참부모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라고 끝맺는다.

순결·순혈·순애의 생활

남녀는 자연스러운 성장, 즉 순수하고 본성적인 성장을 하여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본성적인 상대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법 중에서 사랑을 침범하는 것을 다스리는 법이 제일 무서운 법이다. 사랑의 법도는 절대·유일·불변·영원하다. 여러분이 사랑의 범죄에 걸리면 여러분의 선조까지 희망이 없다.

탈선한 음란죄는 살인죄보다 무섭다. 청소년이 부모를 반대하면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와 국가를 파탄시키게 된다. 아담 해와의 한 날의 실수가 천주적으로 치명적 손해를 가져왔다. 축복받기 전 미완성한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제일 무서운 존재다. 남녀가 이야기하려면 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해야 된다.

하늘부모님은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참사랑의 씨, 참생명의 씨, 참혈통의 씨를 받으시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늘부모님과 함께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거룩한 터전은 참사랑으로 신랑과 신부가 첫사랑으로 만나는 자리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참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순결·순혈·순애·순정을 통하여 참핏줄이 생긴다.

축복의 근본 전통은 순결한 처녀 총각이 순결한 사랑을 통하여 순결한 생명을 낳아 순결한 핏줄을 만드는 것이다. 순결·순혈·순성·순애를 통하여 일심·일체·일념·일행을 이루어 일화가 되어야 한다. 남녀의 사랑관계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 남성은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 순결·순혈·순성을 이루어야 순애로 핵을 이룸으로써 하늘부모님의 상대적 존재가 된다. 남녀가 사랑으로 일심·일체·일념·일행을 이루어 일화가 되면 구형체가 된다. 구형체가 되면 상현과 하현, 우현과 좌현, 전현과 후현의 입체적인 관계를 완성하게 된다.

절대성 교육

하나님께서 모텔 평화이상가정을 이루시고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다. 당신 전체를 완전 투입하시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연결된 천주의 총합실체요 영육계의 매개체이며 만물의 주관주인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모텔 평화이상가정을 이루는 데는 절대 필요조건이 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 위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기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숙명적 노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완성하고 절대자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수 있는 인격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하늘이 정해 놓은 절대적 기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성의 기준이다. 첫째는 결혼식 때까지 지켜야 할 절대성, 즉 절대순결의 기준이다. 둘째는 부부간에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야 할 절대모델성, 즉 절대정절의 천법이다. 부부는 하늘이 정해 준 영원한 반려자로서 자녀를 생산함으로써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창조하는 공동창조주의 절대·유일·불변·영원성의 본원지인 것이다.

절대성은 이처럼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축복이다. 절대성의 기준을 고수하지 않고는 인격완성, 즉 완성인간의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도 인격신, 실체신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완성인간을 통해 참된 가정적 절대성 기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인간과 동거동락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대상이요 자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절대성적 기준에서 완성을 본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절대성을 중심삼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라야 조부모·부모·자녀·손자손녀, 이렇게 3대권을 포함한 인간 본연의 삶의 이상적 모델성관계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 기대 위에서라야 하나님의 영생은 물론 인간의 영생도 가능해진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이상천국을 이 지상에 창건해야 하는 천주적 대혁명기에 있어서 먼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부모와 자녀가 완전 하나되는 교육을 매일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참

부모님께서 주신 교재·교본과 참부모님 자서전 등을 함께 훈독하며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는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절대부모, 절대자녀의 기준을 세워 절대가정을 세우라는 것이다. 하늘은 이제 중생과 부활의 승화권 은사를 가정단위까지 허락하셨다. 하나님 아래 부모와 자녀가 완전일체가 되면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가정을 세우라는 것이다.

부부간의 예절

이상세계에서 부부가 사이 좋게 가면 처녀 총각들은 인사를 해야 한다. 부부가 하나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사회풍토가 되어야 한다. 남편에게 아내가 마음을 맞춰 주면 복을 받을 것ियो, 아내에게 남편이 마음을 맞춰 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하나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방에 들어갈 때는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여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내의 방은 생명이 깃드는 곳ियो, 하늘부모님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며, 영원한 후손이 빛나게 짝이 트는 곳이니 남편이 아내의 방에 들어갈 때에는 자숙해야 한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자리는 왕을 모시러 들어가는 자리이므로 경배해야 한다. 아내가 남편의 방에 들어갈 때는 거룩한 옷으로 단정히 모든 것을 갖추고 외출할 때보다 더 예쁘게 단장하고 들어가야 한다.

부부는 엄숙하게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한다. 합환성(合歡城)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부부가 사랑하는 곳이니 왕권이 부럽지 않고 천상세계 행복의 기지가 부럽지 않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이 있으면 매를 들더라도 좋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든지 싫다. 사랑을 많이 한 남편은 집 안에서 욕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랑의 자극이 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남편의 한마디 말은 살을 에는 것과 같은 파괴의 동기가 된다.

여자의 웃음은 집안의 꽃이다. 원만한 가정을 이루려면 여자는 희비극의 일등배우가 되어야 한다. 남편이 기쁠 때도 완전히 녹여 놓고 슬플 때도 완전히 녹여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같이 죽자고 하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죽더라도 저나라에 가서 같이 살면 된다. 남편의 명령을 절대시킨 뒤에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축복가정의 일상생활

축복가정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항상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어른(부모)이 먼저 잡수시고 난 다음 아랫사람이 먹어야 한다. 자리에 앉을 때도 부모가 앉은 다음에 자녀가 앉아야 한다.

하늘부모님과 일체된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다. 양성인 남자의 생식기는 항상 바지 오른쪽에 있도록 해야 한다. 부부가 잠잘 때에 남편은 오른쪽에, 아내는 왼쪽에 누워 자야 한다. 부부가 사랑행위를 할 때에 남편은 상위에, 아내는 하위에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는 격위가 있고 이에 따른 방식과 질서가 있다. 북쪽은 방위로 볼 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늘부모님을 상징하고, 해 뜨는 동쪽은 양성인 남자를 상징하며, 해가 지는 서쪽은 음성인 여자를 상징한다. 따라서 걸어갈 때에 남자는 오른쪽에서 가고 여자는 왼쪽에서 가야 한다. 앉을

때도 남자는 동쪽에 앉고 여자는 서쪽에 앉아야 한다.

옷을 걸 때에는 남자 옷은 위나 오른쪽, 여자 옷은 아래나 왼쪽에 걸어야 한다. 옷을 넣을 때에도 남자 옷은 위나 오른쪽에 넣고, 여자 옷은 아래나 왼쪽에 넣는다. 옷을 벗을 때에도 바지를 아래에 걸고 옷옷을 그 위에 놓아야 한다.

신발을 놓을 때는 남자 신발은 오른쪽에, 여자 신발은 왼쪽에, 또는 남자 신발은 위에, 여자 신발은 아래에 놓아야 된다. 축복가정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참사랑과 원리와 법도의 생활을 가정적 기반 위에 정착시킴으로써 창조본연의 이상을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까지 연결시켜 궁극적으로는 하늘부모님의 영원한 평화이상세계인 천일국을 창건하게 된다.

삼위기대

축복가정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참부모님께서 삼위기대의 전통을 세우셨다. 참부모님께서 삼위기대의 목적과 기능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세세한 지시를 내리셨다.

삼위기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일부 축복가정은 같은 축복식에서 삼위기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다른 가정들은 믿음의 자녀와 삼위기대를 이루기도 한다. 그 외에도 지리적 위치나 활동 방향을 중심으로 삼위기대를 맺어 주시기도 한다.

참부모님께서 삼위기대를 이룬 가정들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위하고 돌보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믿음을 돈독히 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삼위기대의 한 가정이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두 가정이 보듬어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삼위기대에 속한 가정들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가정이 전도 활동으로 바쁠 때 아이들을 돌보며 서로를 품어줄 수 있다. 또한 신종족 메시아 활동의 금전적 지원이나 전도활동을 위한 공간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기도실과 단(壇), 진상

1) 기도실

축복가정의 모심의 삶은 교회활동만이 아닌 일상생활 속 보고기도와 정성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온 가족을 위한 단을 세워야 한다. 기도정성을 위해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여 매일 모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다.

기도실은 가능하다면 방 하나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필요 시 손님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별 방을 따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집 안의 한 공간을 기도 장소로 지정한다.

기도실은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정성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장소이다. 일상 속 기도정성을 통해 하늘부모님과 모든 행동을 공유할 수 있는 순수하고 겸손한 심정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엄청난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도실을 예배실로 사용할 수 있다.

기도실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청소한다. 기도실 유지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름다운 커튼과 싱싱한 꽃과 식물, 제일 좋은 의자와 쿠션을 준비한다. 성가를 부를 때 거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음향기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기도실 장식으로 참부모님 존영, 가정맹세 족자, 천일국 3대 경전, 성가책, 통일교회 깃발 또는 가정연합 깃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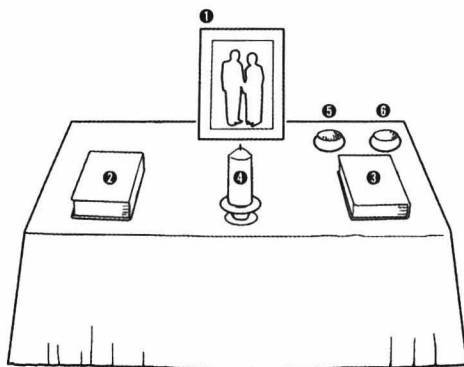
2) 단(壇)

축복가정의 모심생활은 참부모님의 존영(尊影)을 중심에 두고 단을 배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훈독회를 통해 하늘부모님께 하루를 바침으로써 축복가정의 안전한 정착이 보장된다.

단이 놓일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성염으로 성별한 후 단을 세워야 한다. 작은 단을 준비하고 깨끗하고 밝은 색의 천으로 덮고 그 위에 참부모님 존영을 올려놓는다. 추가로 단상에 천일국 효정원, 성초, 성염 그리고 싱싱한 꽃을 올려놓을 수 있다. 단은 북향에 위치한 것이 좋으나 벽 또는 창문으로 가로막혔을 경우 위치에 상관없이 벽 앞에 둔다. 가능한 한 단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옮기지 않을 위치에 처음부터 자리 잡는 것이 좋다.

8대 명절과 성일에는 단상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과일, 견과류와 과자 등을 올려놓는다.

가족 단 예시



- | | |
|-----------|----------|
| ① 참부모님 존영 | ④ 천일국 성초 |
| ② 원리강론 | ⑤ 천일국 성념 |
| ③ 천일국 경전 | ⑥ 천일국 성토 |

3) 진상

축복가정이 해야 할 전통 중의 하나가 모심생활의 일부로서 매일 음식상을 준비하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진상하는 것이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신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물론 이것을 하늘부모님이나 참부모님께서 직접 드실 수는 없으나 축복가정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그분들을 모시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축복가정이 이러한 예를 갖추려고 할 경우에도 아래에 기술된 일정한 지침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좋다.

- 전적으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전용 그릇 일체(사발, 대접, 접시, 수저, 컵, 쟁반 등)을 구입한다. 이것들은 사용하기 전에 성염으로 성별한다.
-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할 장소(선반이나 부엌 및 거실의 찬장)를 선택해 놓는다. 보관 장소는 성염으로 성별한 다음 신성시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음식이 준비되면 첫 번 것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올리는 것으로 따로 차린다. 음식은 정해진 그릇에다 담아 준비된 자리(예를 들면 기도실의 단상, 또는 정해 놓고 올리는 자리)에 잘 갖다 올려야 한다. 그릇은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며 올린다. 기도는 특별한 내용과 형식이 없으며,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상에 올린 음식은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내려 가지고 와서 먹는다.
- 만일 손님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경우 봉헌된 음식을 다른 그릇에 담아 대접한다.
-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경우 돌아가며 봉헌된 음식을 먹도록 한다. 음식

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릇은 깨끗이 씻어서 지정된 곳에 잘 보관한다.

진상은 매 식사 때마다(하루 세 차례)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위한 식사를 올리는 것도 괜찮다.

